

## 발전교육론으로서 정범모(鄭範謨)의 ‘자기결정론’의 의미 분석

하승천(河勝千)\*

유성상(劉聖相)\*\*

### 논문 요약

본 연구는 국제교육개발협력분야 사업에서 공통된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이념을 설립해야 할 필요성을 중심으로 정범모(鄭範謨)의 ‘발전교육론’을 분석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국가발전에 있어 교육의 역할과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정범모의 발전교육론은 개인의 자아실현 및 본연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론적 체계로, ‘자기결정론’이란 개념을 중심으로 발전을 위한 ‘교육의 근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발전교육론이 갖는 교육의 기능주의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범모의 ‘자기결정론’은 국가와 사회의 구조적 갈등과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될 수 있다. 또한 자기결정론이 인간과 교육의 수단화된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에도 직면한다. 그러나 정범모의 ‘자기결정론’은 한국의 국가발전과정에서 교육이 차지해온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개발도상국과 교육개발협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교육개발의 담론으로서 ‘자기결정론’은 첫째, 국가발전을 위한 교육은 사회 전반적인 발전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개인의 발전 또한 이룩해야 한다는 점; 둘째, 국가발전을 위한 교육은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사회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국가발전을 위한 교육은 편중된 교육의 성장보다는 통합적인 교육의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의 개발을 위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어 : 정범모, 발전교육론, 자기결정론, 탈발전론, 국제교육개발협력

\* 제1저자, 서울대학교 대학원 글로벌교육협력전공 석사과정

\*\* 교신저자,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직과 교수

## I. 문제제기

1980년도를 기준으로 인구 200만 명 이상의 나라만을 조사한 World Bank의 2004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대부분의 아프리카 나라와 함께 저소득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지난 30여년 동안 한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반면,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남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는 저성장 상태에 머물러 있다. 2012년의 한국은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넘어 3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는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한국의 성장 역사는 해외로부터의 교육원조<sup>1)</sup> 역사와 함께 한다. 1948년에서 1960년까지의 교육의 기초수립 및 전후 재건기 및 1961부터 1980년까지의 교육의 양정성장기 모두 해외로부터의 교육원조에 의지하여 교육의 기반이 설립되었다(이종재, 2006). 이외에 국가연구기관으로서 KIST가 1966년도에, KDI가 1971년도, 그리고 KEDI가 1972년도에 각각 원조자금으로 설립되었다. 이러한 기관들은 한국의 과학·경제·교육 연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국가단위의 역량개발”이 교육원조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찬희 외, 2009).

한국은 2009년 OECD DAC에 가입하면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증대해 왔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역할하게 된 것이다. 국무총리실(2011)에 의하면 매해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2012년 총 ODA규모는 1조 9천억 원으로, 2011년보다 약 2천억 원(12%)이 증가하였고 GNI 대비 비율 0.15%로 확대될 전망이다.<sup>2)</sup> 이 중 무상협력의 경우, 교육, 농림수산, 공공행정, 보건 분야에, 유상협력은 녹색성장, 교통, 에너지, 거버넌스 분야에 중점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우리가 빈곤에서 탈출하여 스스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과정을 ODA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2012년까지 100개의 개발경험사례 및 국별협력전략(CPS)<sup>3)</sup>을 만들었다.

한국교육의 발전 경험과 노하우는 전후 반세기동안 비약적인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주목 받았고, 개발도상국들의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였다. 이에 한국 교육의 효과적인 공유와 전수를

- 1) 교육ODA, 교육원조라는 표현대신 이 연구에서는 국제교육개발협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자 한다. 교육 ODA 교육원조는 경제적·정치적 의미에서의 지원이 강한 성격을 내포함에 따라, 일방적 성격의 차원을 벗어나서 공여국, 수원국 간의 상생을 위한 개념으로서 국제교육개발협력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국제교육개발협력에서 교육이라는 의미는 그 범주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개념이며, 국제교육개발협력학자에 의해 그 의미가 명료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 글에서 교육이란, 절대적 빈곤에 처한 국가와 개인들이 현 빈곤의 현실을 과거의 경험으로 바꾸고자 노력하는 인간의 독특한 측면을 교육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따라서 정규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비정규교육기관에서 다루어지는 비곤 타파와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교육활동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2) 2011년 ODA 규모는 약 1조 7천억 원, GNI 대비 비율은 0.13~14%로 추정. 2015년까지 GNI 대비 비율을 0.25%까지 높일 계획이다.(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실, 2011.12.26일 보도자료)
- 3)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 수원국의 개발계획을 토대로 해당 국가에 대한 ODA 지원규모, 중점 분야, 대상사업, 추진전략 등을 정한 국가별 중기 ODA 추진계획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박태준 외, 2007; 배상훈, 2007; 이석희 외, 2007; 이계영, 2006; 조현아, 2009). 이러한 한국경제 및 사회의 발전은 강한 교육열과 정부의 강력한 교육정책 추진을 통해 우수한 인적자원을 적시에 개발하였기에 가능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09: 4). 실제로 한국은 일제 식민 치하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국가적인 '극단적 빈곤'의 현상에 처해 있었지만, 학교교육의 급속한 팽창으로 양질의 풍부한 인적 자원을 양성·공급했던 교육이야말로 경제 성장과 국가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한국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을 통하여 교육부분은 2010년 기준 대외무상원조로 64,760천 달러를 쏟아 부었으며, 전체 대외무상원조 중 약 14%차지하고 있다. 이 14%는 프로젝트 사업 및 연수생 초청, 봉사단원파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10).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육 발전이 국가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기본적인 개괄적인 논의를 초월하여, 교육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어떤 과정을 거쳐 특정 결과를 가져왔는지, 또한 국가 및 사회의 변화에 어떤 파급 효과와 기여를 해 왔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연구는 많지 않다고 지적한다(이찬희 외, 2008). 또한 현재 국가 차원의 교육분야 ODA에 대한 전략 및 목표가 부재하기 때문에, 교육분야 ODA의 주된 주체가 설정한 전략 및 목표에도 일관성과 장기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박소영, 2009).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교육정책 수립과 추진을 지원하는 국제교육개발협력의 체계적이며 공통적인 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장기 목표 설정을 위한 기본 이념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논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교육개발협력사업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통한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게 만들 것이다. 나아가 이른바 한국형 국제개발협력 개념과 모형개발을 강조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개도국과의 개발협력을 위한 방향 설정 논의를 한층 더 진전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국제교육개발협력의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기 위한 기본적 이념을 세우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국내에서 국제교육개발협력 분야가 학문적으로 형성되고 있지 않다는 점과 한국 교육 경험을 개발도상국가에 공유하는 역사가 짧은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교육론' 담론을 이 연구에서 가져온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전교육론'은 교육과 다른 분야의 발전의 상관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연구 분야로 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의 개념과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중요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발전교육론'은 교육분야의 개발협력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적 관계를 통하여 상호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식민지와 냉전시대에서 벗어나서 자주적인 민족으로 성립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특수한 조건이 지금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의 형편과 다르지만, 국가를 재건해야 한다는 목적에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같기 때문에 국제교육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발전교육론'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차경수, 1988).

한국의 경우 1960-70년대 정치·경제·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교육의 역할을 살펴보는 연구들을 통하여 교육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해 온 연구들이 있어 왔다. 하지만, ‘발전교육론’에 대한 정확한 논의가 국내에서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전교육론’에 정통한 담론을 찾기가 어렵다. 빈약한 담론 형성 상황 속에서도 정범모(鄭範謨)의 교육론에서 ‘발전교육론’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가 제시한 교육의 기능과 역할을 ‘발전교육론’의 요소로 분석해 낼 수 있으며, 특히 정범모는 ‘발전교육론’의 기본적 이념이자 자주적 특성을 반영하는 ‘자기결정론’의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을 통해 길러져야 하는 인간상이자 발전국가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로 보았기 때문에 위 사상을 이해하는 것이 정범모의 ‘발전교육론’을 분석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정범모는 교육을 통한 국가발전 논의를 주도했던 학자로서, 일찍이 한국 교육을 해외에 전파하고 공유하는 미래의 구상을 제시하였었다(이성진 외, 1994). 정범모는 “교육과 국가발전”(1978)을 통하여 교육과 국가발전의 개념적 접합점을 확인하고, 그 접합점에서 시사되는 교육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욕구와 국가발전”(1982)을 통하여서는 인간의 자아실현을 위한 인간 특유의 동기적 특성을 사회발전과 국가발전과 관련하여 규정하였다. 이 후 저서에서는 교육을 통한 인간적 특성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 받는 인간’이 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을 끊임없이 주장하였다. 최근의 국제교육개발협력 연구는 이러한 정범모 교육론과 일정한 관련성을 갖는 듯 보인다. 즉, 교육의 역할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모습과 형태를 보이지만 무엇보다도 경제 일변도의 발전보다는 인간 본연의 발전을 추구하는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범모의 ‘발전교육론’ 개념을 ‘자기결정론’의 형성으로 검토하고, 이를 국제교육개발협력의 장기 목표 설정을 위한 기본적 이념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 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정범모의 ‘발전교육론’의 논의가 대두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둘째, ‘발전교육론’으로서 정범모의 ‘자기결정론’ 개념과 관계를 분석하며, 셋째, ‘자기 결정론’에 대한 한계를 제시한다.

## II. ‘발전교육론’의 논의의 배경

이 장에서는 발전교육의 정의와 그 의미를 살펴본 후, 정범모의 ‘발전교육’을 역사적 배경, 교육적 상황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발전교육론: 개념적 이해

교육을 통하여 국가가 정치적으로 좀 더 안정된 민주사회를 이루고, 경제적으로 살기 좋은 부강한 국가로 발돋움하며, 사회적으로 신분과 계층의 차별이 철폐된 개방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전제로 한 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논하는 관점을 가리켜 '발전교육론(Development Education)'이라고 부른다(최성욱, 2002: 216). 역사적으로 볼 때, 발전교육론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의 많은 신생국들이 세계사의 표면에 등장하면서 근대화와 국가발전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데에서부터 비롯된다. 선진국들은 그들의 발전이 신생국들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성을 주목하여 1960년대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해결방법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가에 원조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발전교육론'은 196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연구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 후, 1980년대 이후에 다시 관심이 되살아나기는 하였으나 주로 국가가 관여하기 보다는 비정부기구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주도 되었다(김이경 외, 2006). 이 이론의 틀에 따라 공여국들은 원조를 통하여 수원국의 정치, 경제, 교육 등 사회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후진성을 벗어나게 도움을 주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개발도상국의 실정에 맞지 않은 서구식 제도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차경수, 1976: 169).

'발전교육론'은 주로 정치·경제·사회 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을 목표로 한다. 김영화 외(1997)에 따르면 국가발전이란 경제 발전과 사회·문화 발전, 산업 구조의 고도화, 고용의 증대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사회·문화 발전은 사회계층이동, 사회의 개방화, 사회의 정보화, 시민 문화(의식)의 형성, 가치 체계의 다원화, 민족 문화 역량의 증대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의미하며, 정치 발전은 국가 건설과 국가 통합, 공공 질서의 유지 역량 증대, 정치 참여의 증대, 정치 엘리트의 자질 향상, 정책 수행의 효율성 증대, 정당정치와 의회정치의 발전, 국가 안전 보장 역량의 증대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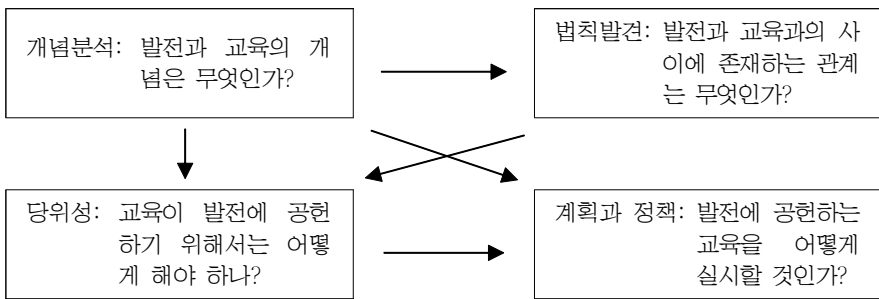
이러한 국가발전의 도구로서 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과 국가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으로는 '근대화 이론', '인간자본론', '종속이론' 등이 존재하는 데 이러한 담론 중, 국가를 재건하고 경제·사회·문화의 발전을 위한 교육의 수단화 측면에서의 '발전교육론'은 '근대화 이론'적 측면과 맞닿는 부분이 있다. 이는 교육의 외재적 발전관을 발전교육이라고 보는 최성욱(1997)의 의견과도 일치하다.

'발전교육론'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인격 형성이나 행동 변화를 교육의 본질로 보지만 결국 이러한 교육이 어떤 경우에 국가 발전에 최대도 공헌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발전교육론의 우선적인 관심은 학교가 아니라 노동세계 및 기타 학교 밖의 사회의 유지, 존속, 발전에 있으며, 교육의 과정이 아니라 교육의 결과에 있다. 교육은 목적이 아니며, 수단일 뿐으로 학교의 구조와 과정은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여 형성, 발전해야 한다고 본다(김영화, 1997).

그러나 ‘발전교육’에서는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교육의 발전을 추구하지만 ‘교육’의 발전 자체를 논의하지 않는다는 비판적 측면을 고려하여(최성욱, 1997), 앞으로 논의에서의 ‘발전교육’은 국가의 발전을 위한 교육 뿐만 아니라 교육의 발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짓고자 한다.

국내에서 ‘발전교육’에 대한 언급은 1969년 정범모가 “인간과 국가발전”에서 언급을 하였으며, 이후 “사회개발 심포지움”(1969b) 자료를 살펴보면 발전교육과 그 내용에 대한 언급을 찾아 볼 수 있다. 그 후, 차경수(車京守)가 ‘발전교육이론’을 1988년에 발간하면서 “발전교육이론”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었다. 이 저서에서는 ‘발전교육론’을 정의하면서 ‘발전교육론’의 역할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이 언급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발전교육론’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발전교육론’은 교육과 발전과의 관계를 분명히 한다. 국가발전에 교육의 공헌 정도를 특정지어 교육과 발전의 관계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 ‘발전교육론’의 첫 과제라고 제시한다. 둘째, ‘발전교육론’은 교육과 발전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한다. 교육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이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발전교육론’인 것이다. 한 나라의 정치·경제·사회 발전의 정도가 교육에 의해 과학적으로 규명된 수많은 연구가 이 분야에 속하는 것이다. 셋째, ‘국가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교육’을 모색하는 것이 ‘발전교육론’의 중요한 내용이다. 따라서 위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누어 살펴보면 ‘발전교육론’은 발전과 교육의 관계 사실을 과학적으로 살펴보는 일과 국가발전을 위한 교육을 모색하는 일로 구분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도식화 하면 [그림1]과 같다(pp. 129-131).



[그림 1] 발전교육과 내용도형도(출처: 차경수, 1988. p.133)

## 2. 정범모 ‘발전교육론’의 역사적 배경

인간은 자기가 겪는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시대적 배경에 따라 사상 및 가치관 등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과연 정범모는 어떠한 배경으로부터 ‘발전교육론’을 제시하였는 지를 그가 살았던

역사적 배경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범모는 1925년 출생으로 그가 태어난 시기는 일제식민지 치하였다. 그 후, 그는 1945년 해방을 맞이하면서 국가를 가지게 되었으나, 1950년 한국전쟁을 통한 민족분쟁의 역사 속에서 살았다. 정범모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민족과 국가', '민주주의', '경제적 성장'과 같은 국가적 성장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접하기 시작하였고 그의 저서 "발전의 서장"(1968)을 통해 '국가발전'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정범모의 1960, 70년대 초반의 저서를 보면 무엇보다도 '국가발전'의 의미를 '경제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경제발전을 통한 '절대빈곤'을 벗어나는 것이 정치·사회 발전 보다 시급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거리의 어린아이들 중에는 요즈음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보는 불룩한 배에 몸은 삐쩍 마른 배불뚝이가 많았고, 겨울에도 옷옷만 걸치고 아랫도리는 벌거벗은 아이도 흔하게 눈에 띄었다...사람들은 가난을 거의 숙명이라고 생각했고,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운명론에까지 빠져 있었다... 나 또한 그랬다... 절대빈곤에서의 탈출이라는 초미의 대명제 앞에서는 그것은 작은 작은 명제로 뒷전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빈곤탈출 자체가 우선 삶의 질 추구였고, 다른 삶의 질을 생각해 볼 여유가 별로 없었던 셈이다. (2004: 59, 60)

197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경제적 성장으로 인한 '탈발전(脫發展)론'이 확산되면서 정범모도 경제성장 일변도의 '국가발전'의 개념을 정치·경제·사회 전 영역으로의 확장을 시도하게 된다. 따라서 1970년대 후반부터의 '국가발전'은 전 영역에서의 발전을 의미하게 되며 전 영역의 발전을 위한 방법으로 '교육'의 역할을 들고 있다. 불안정한 정치·경제·사회 발전에 교육이 발전의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 시점이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더 확장된 '탈발전론'에 입각한 교육의 입장을 제시한다. 즉, 경제발전을 위한 '인간의 수단화' 및 목적주의에서 벗어나 단기적인 안목보다는 장기적 안목을, 인간의 수단화보다는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며, 분권 및 민주주의 풍토, 평등주의의 사고의 확장을 위한 전인적인 교육을 지향하게 된다. 향후 그는 그의 저서 "미래의 선택"(1998), "인간의 자아실현"(2000)을 통해 그의 교육철학을 펼치게 된다.

### 3. 교육적 상황

'발전이론'과 '발전전략'을 논의하면서, 정범모는 발전에 있어 인간요인이 강조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이에 적응하며 수행되어야 할 교육으로 그의 관심사를 자연스럽게 옮겨갔다. 특히 이러한 한국사회의 발전에 대한 욕망은 극히 거센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정범모(1978)는 교육의 위치가 발전이론 및 발전전략 속에서 비교적 불투명 하고, 한국 교육의 현실은

교육의 역할을 너무 심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범모는 교육의 비과학적 특성을 제시하면서, 지금까지의 교육은 인간을 막연하게 다루면서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교육이 실시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교육과 교육학”(1969)에서 정범모는 그 당시 교육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이제 차분히 교육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다시 깊이 새로이 생각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교육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수많은 논설에 앞서, 우선 교육을 무엇이라고 보느냐 하는 ‘교육관’을 정립 또는 재정립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왜냐하면, 이런 교육관의 여하는 교육철학과 교육연구에 의외로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가정책에서 교육정책이 허술한 것은 위정자의 교육관이 허술한 것에 크게 기인하며, 교사에게 교육열과 사기가 얇은 것도 피상적인 교육관에 크게 기인한다. 또한 흔히 느껴지고 있는 ‘교육학’의 학문으로서의 애매성도 출발점이어야 할 교육관의 모호한 정립에 크게 기인하며, 젊은 교육학도가 흔히 느끼는 학적 진로에 관한 불안감도 불안한 교육관에 크게 기인하는 것을 자주 느낀다. 교육을 수식하는 온갖 통상적인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도 이러한 허술하고 피상적이고 때로는 모호하고 불안한 교육관을 거쳐 왔다. 이와 같은 과거를 반성해 보면, 이런 필요는 더욱 절실하게 느껴진다. (p.1)

따라서 정범모는 교육에 관한 뚜렷한 목적의식과 그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의 존재의 유무로 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한다. 이는 곧, 그의 교육 정의인 ‘인간의 계획된 행동 변화’로 귀결되게 된다. ‘인간의 계획된 행동 변화’는 행동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후, 과학적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환경 및 처치를 구성해서 제시하고, 그 결과인 행동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평가해 나가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장상호, 1995).

정범모는 교육의 정의를 내린 후, 이러한 교육의 정의 구현을 위한 또는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주변상황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사회발전과 교육이념”(1975)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주변 상황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육의 영역<sup>4)</sup>이 설정되게 된다. 이러한 교육의 영역은 사회 상황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정치·경제·사회에 따라 규정되었다. 따라서 정범모에게 있어, 사회의 각 상황은 그대로 교육과 주고 받는 주변상황 또는 주변사정을 이루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은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아야 할 상황과 영향을 주어야 할 상황을 고려하게 된다. 하지만, 종래의 교육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정치·경제·사회의 영향을 주로 받았지만, 이제는 교육이 정치·경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입장을 취하게 되면서 국가발전

4) 정범모는 교육학, 교육철학, 교육사회학, 교육정치학, 교육경제학, 교육행정학, 교육문화·인류학, 교육심리학 등 교육의 범위를 설정하였다(정범모, 1975: 340).



### Ⅲ. 정범모의 '발전교육론' 논의

정범모는 국가발전을 위한 교육의 개념으로 '발전교육'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즉, 국가발전을 위해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자는 의미이다. 정범모의 교육관이 인간의 수단화, 교육의 수단화라는 비판을 받지만, 정범모의 '발전'이라는 용어의 이면에는 인간의 '주체성 확장'이라는 의미의 '자기결정론'의 용어가 등장한다. 이 '자기결정론'은 곧 정범모의 '발전교육'의 목표로 자리 잡게 된다.

이 장에서는 정범모의 '자기결정론'의 개념, '발전교육'과 '자기결정론'의 관계 및 '자기결정론'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한다.

#### 1. '자기결정론'의 개념

정범모(1975)는 발전이론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근대적인 혹은 과학적인 도구의 증가, 2) 지식 및 기술의 근대화 및 증진, 3) 제도와 그 운영의 수준, 4)통용되고 있는 관념, 아이디어의 수준, 5)가치관의 수준. 이러한 범위를 규범화하면서 정범모(1978)는 발전에 대한 접근을 도구, 지식 및 기술, 제도, 가치관의 각 수준에서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발전에 공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방법은 과학적·계획적으로 근대화를 추구하는 시도였다고 해석된다. 이를 바탕으로 정범모는 발전을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나 인간의 특성을 규정해 보려는 접근으로 '자기결정론'이라는 종합개념을 제시한다.

정범모는 (1969b)는 '자기결정론'의 정의 및 내용 설명에 앞서 '자기결정론'의 기저의 기본 전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결정론'의 기본 전제는 '이치관', '변화관', '미래관'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치관은 '세계질서관'과 같은 맥락이다. 이는 세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게 보이나 그 내면에는 질서 및 규칙,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를 이해하는 체계가 합리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인간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는 또한 체계적이며 합리적 사고를 강조하는 '과학공업화'가 나오게 되는 전제이기도 하다. '변화관'은 세계는 곧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변화가 곧 악(惡)이라고 보는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시간의 흐름과 노력에 따라 세상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이는 세계가 변화하여 새로운 미래를 형성할 수 있다는 '미래관'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정신적 전제하에 '자기결정론'에 대한 개념이 성립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범모는 "사회발전과 교육이념"(1975)에서 교육을 정의하면서 그 내면에 작용한 인간의 특성 및 진보관, 변화관을 바탕으로 발전을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을 위한 종합개념으로 제시된 '자기결정론'은 국가의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기본

적 이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p. 345).

“사회발전과 교육이념”(1975)에 앞서 정범모는 1969년 “제1회 사회개발 심포지움 특집: 발전도상국가에 있어서의 사회개발의 제과제; 종합토론”에서 ‘자기결정론’에 대해 언급을 한다. 정범모는 예시를 들면서 ‘자기결정론’을 설명하고 있다.

자기결정론적인 인간이란 “홍부·놀부전”에 나오는 홍부와 정반대되는 인간이라고 봐도 좋다. 홍부와 같이 의타적(依他的)이고 한타적(恨他的)이고 그리고 어떤 신비(神祕)에 기대서 성공하는 형이 아니라 의타자수(依他自手), 한타(恨他), 책타(責他) 보다는 스스로의 책(責)하고 스스로를 책찍하며, 어떤 신비(神祕)보다는 합리적 행동(合理的 行動)으로 성공(成功)을 결실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그것이 경제(經濟)건 정치(情致)건 사회(社會)건 또 무엇이건 그 진로(進路)와 운명(運命)의 결정자(決定者)는 자기자신(自己自身)이며 인간(人間)이라는 신념의 근간이다. (정범모 1969b: 5)

위의 예시에 따르면 정범모가 설명하는 ‘자기결정론’이란 개인과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환경에 기인하는 것 보다는 개인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주체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정범모(1975)는 주체적 사고를 강조하는 ‘자기결정론’을 경제적·정치적·사회적으로 재규정을 시도하였다. 경제적 개념으로서의 ‘자기결정론’은 ‘과학공업화’이다. ‘과학공업화’란 자연이 주는 것을 수동의 입장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도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연여건의 빈부에 관계없이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한다는 것이 ‘자기결정론’이 된다는 의미이다. 정치적 개념으로서의 ‘자기결정론’은 ‘참여화’를 의미한다. ‘참여화’란 주어진 정치적 여건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이 정치적 운명을 개척한다는 ‘비숙명론’을 의미한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불안정한 분위기였는데,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정치적 참여화’에는 자기 스스로 흥미한 상황을 개척해야 한다는 시대적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 사회적 개념으로서의 ‘자기결정론’은 ‘개방화’를 의미한다. 한국은 가문·지연·계급·관례 등 전통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개방화’란 개인의 활동에 방해가 되는 기존의 관습을 개인의 힘으로 지위와 활동을 정해 나가자는 의미이다. 즉, 사회여건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적 운명도 인간이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한다(pp. 345-346). 더불어 정범모(1969b)는 ‘개인화’ 개념도 포함시켰다. ‘개인화’는 주어진 사회적 여건에 기대지 않고 기존의 환경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인격 능력으로 자신의 활동, 자립 등의 사회적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자기결정론’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요소를 좀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범모의 교육적 개념 및 규정을 살펴보면 된다. 정범모는 그의 저서 “교육과 교육학”(1968)에서 교육의 개념을 정의 하고 있다. 이 저서에 의하면 정범모가 밝히는 교육은 ‘인간행동의 계획적인 변화’이다(p.18). 정범모의 이 정의에는 세 가지 중핵 개념 내지 개념적 준거, 즉 ‘인간행동’, ‘변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범모의 교육 개념은 바로 그 당시의 한국 교육이 응당 가지고 있고

가져야 할 행동변화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유재봉, 2004: 222). 이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범모는 교육은 '인간'을 다룬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범모가 '인간'을 다룬다고 설명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신조가 깔려있는데 첫째,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 중요하다는 '인간 존엄성의 신조', 둘째, 인간은 스스로 자연, 세계, 환경을 움직이고 개조할 수 있다는 '인간 주체성의 신조', 셋째, 인간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인간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능성의 신조'를 포함하고 있다(pp.44-55). 그가 바라보는 인간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정범모(1969b)는 인간을 바라볼 때, '인간주체관'이라는 용어에 집중한다. '인간주체관'이란 '자아의식', '개인화', '개인의식'과 동의어로 간주된다. 그는 전통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인간주체관'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와 더불어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 및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도 '인간주체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먼저 '인간과 세계'에 관해서는 "인간은 자연외계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복하여 인간의 뜻대로 구사하고 개척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보는 관"이 중심 사상을 이룬다. 세계에 대해서는 '정복관', '능동관'이 작용하며, 인간이 외계에 대해서는 '생산관', '창조관'과도 통한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다양한 '관(觀)' 들은 비단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 및 제도 등 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간과 인간'은 '종적·횡적' 개념으로 접근을 시도한다. 한국의 전통사회는 인간관계가 '종적'인 관계에 머문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종적'인 관계는 '시민의식' 및 '공민의식'을 형성하는데 저해가 되어 민주적 시민사회 형성을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인간주체성'을 가질 때 종적인 관계가 '횡적'인 관계로 변화가 되고 인간 서로에게 '상생'적 성장을 작동 시킬 수 있다.

더불어 그는 교육을 정의함에 있어 '인간행동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변화'라는 것은 "육성, 조성, 함양, 계발, 교정, 개선, 성숙, 발달, 증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는 데는 인간 행동의 '변화가능성(변화관)', 나아가 '진보 가능성(진보관)'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행동의 변화 가능성은 교육이라는 학문의 성립기반인 동시에 그 존재이유가 된다(pp.62-70).

마지막으로 '계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계획' 아래 '인간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교육의 목적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이론 및 교육과정을 확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계획'에는 보이는 세계 뒤에 질서가 숨어있다는 '질서 세계관', 그러한 질서는 인간이 알아 낼 수 있는 것이라는 '가지론', 그리고 그러한 질서를 알아내고 이용하는 인간의 힘은 지력이고 이성이라는 '합리주의의 신조'가 가정되어 있다(pp.55-61).

이를 종합해 보면 '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이념을 '자기결정론'으로 특정 지었으며, 이러한 '자기결정론'은 세계에 대한 '질서관', '변화관', '미래관'과 인간자신에 대한 '주체관', '합리관'과 인

간과 세계의 관계에 대한 ‘정복관’, ‘생산관’, ‘창조관’, 그리고 인간의 관계에 대한 ‘횡적관계관’, ‘생산적 관계관’으로 설명할 수 있다.<표 1> 참고)

<표 1> ‘자기결정론’의 관(觀)

		자기결정론		
		세계	인간	
관(觀)	질서관 변화관 미래관	인간개인	인간과 세계	인간과 인간
		주체성 합리성	정복관 생산관 창조관	횡적관계관 생산적관계관

출처: 저자작성

## 2. ‘발전교육’과 ‘자기결정론’

정범모의 ‘교육’과 ‘발전’이 통합되게 된 계기는 무형적 측면에서의 ‘발전’에 집중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통념이나 가치관은 ‘무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고 한 문화·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규정하고 파악하려는 경향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 특성을 어떻게 조성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교육이 발전이론과 발전전략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부각된다고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정범모(1975)는 교육을 한 국가의 제반 발전의 필요와 직결시켜 계획·운영하려는 이론적·실제적 노력을 ‘발전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종합한다.

즉, 정범모(1969b)는 ‘발전교육’이 추구하는 바는 위에서 제시한 ‘자기결정론’을 개인에게 교육시켜 결국 건설한 정치·경제·사회를 이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인간이 개인 자신이나 사회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는 전제로부터 시작한다. 이와 동시에 정범모는 ‘발전교육’이 인간의 변화 자체에 주목하기 보다는 국가의 제도적 측면을 강조하여 인간의 변화를 이끌고 있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즉, ‘인간’과 ‘환경’이라는 요인이 존재한다면 국가의 제도적 측면인 ‘환경’을 강조한 것이 ‘발전교육’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범모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p. 9).

중래 여러나라의 (그중에 한국(韓國)도) 발전전략(發展戰略)은 보다 물동적(物動的), 제도적(制度的) 측면(側面)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환경을 바꾸면 인간(人間)은 자연히 발전적(發展的)인 행동(行動)을 한다는 전제(前提)를 더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을 부인(否認) 못한다. 즉,

$$\text{발전(發展)}- f (\text{인간(人間)} \times \text{환경(環境)})$$

이라는 함수관계(函數關契)를 세워 본다면, 종래의 발전전략(發展戰略)은

발전(發展)- f (환경(環境))

이라는 함수를 주로 하였으며...여기에 교육(教育)은

발전(發展)- f (인간(人間))

이라는 측면(側面)의 함수(函數)를 보다 강하게 드러내고 그 함수(函數)에 새로운 인간특성(人間特性)의 치(值)를 대입(代入)함으로써 발전치(發展值)를 올리려는 셈이다.

정범모는 '발전교육'의 '환경'적 측면을 제외하고 '환경'과 '인간' 요인 중 하나를 강조하기 보다는 이 두 요인의 적절한 조화가 '발전교육'에서 필요한 형태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환경'과 '인간' 조화롭게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한 '자기결정론'을 개인에게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된다. 이것이 '발전교육'의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이다.

이에 대한 예시로, 정범모는 "사회발전과 교육이념"(1975)에서 '발전교육'의 미비점을 지적한다. 그는 '발전교육'이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의 공리주의를 따르면서 인간의 수단화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즉, 국가내지 국가발전의 필요는 사회적 필요인데, 그것에 봉사한다는 교육은 개인의 필요를 말살하기 쉬운 것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발전교육'은 국가발전을 위한 교육이란 그 명제가 국가라는 또는 사회라는 집단을 위하는 명제로 설정되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고 정범모는 주장하는데 이는 개인을 희생하려는 견지로부터 시작된 비판적 견해이다 (pp. 348-349).

하지만, '발전교육'의 철학적 근본을 '자기결정론'이라고 볼 때 '교육 및 인간의 수단화' 문제는 해결 될 수 있다. 개인의 자아실현이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의 실현은 그것을 가능케 하는 사회의 구현이 있어야 하는 필요성의 견지에서 도리어 국가발전을 위한 사회적 관점보다는 개인을 위한 철학에 뿌리를 박을 수 있기 때문이다(p. 349). 즉, '환경'적 측면을 강조하기 보다는 '개인적 측면'을 강조하고 보다 주체적인 교육의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환경'과 '개인'의 조화를 꾀하는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발전을 위한 '발전교육'은 교육과 인간을 국가발전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보다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사회구현 및 사회 전체에 변화·생성·진보관을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는 곧 '자기결정론' 신장을 도모하며, 개인 및 사회 전체의 '자기결정론' 신장은 국가발전을 이끌게 된다는 매커니즘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자기결정론'을 기반으로 한 '발전교육' 내용에 대해 정범모는 교육의 '근대화' 개념을 들어 구체화 된 내용 구상을 시도한다. 정범모는 시대의 근대성에 맞게 교육의 '근대화'를 주장하고 있다. '근대화'란 교육의 '후진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로서, '후진성'을 벗고 '근대화'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정범모는 교육의 '근대화'의 범위를 교육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공학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pp. 352-354). 이를 표로 재구성하면 <표 2>과 같다.

&lt;표 2&gt; 정범모의 교육의 근대화

영역	핵심개념	후진성	근대성	교육방법
깊이	심층부의 변화	심층부의 무계획적 변화	심층요인의 계획적 변화	▫ 심층특성을 위한 교육 과정 및 학습방법 연구
길이	교육의 연령 변화	6세부터 22세의 초·중·고 교육	6세전, 22세후의 교육	▫ 직장의 현직교육 ▫ 교육사회의 확장 및 유아교사의 양성
넓이	지역사회와의 연동	지역사회와의 비연동	지역사회의 학교 원칙 실현	▫ 학교의 교육기능과 지역사회의 교육 기능 구분 ▫ 학교자원의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참여 ▫ 지역사회 자원의 학교에 공헌여부 조사
공학	과학을 이용한 교육	전통적 방법 고수	바라는 인간변화를 과학을 통한 달성	▫ 시청각 기자재 ▫ 잘 짜여진 프로그램 ▫ 교과서 및 교육과정

출처: 저자작성

정범모는 인간행동 특성의 대부분이 인간의 심층요인<sup>5)</sup>과 관련 있다고 전제하면서 심층요인의 계획적인 조성의 노력의 성과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그는 심층특성을 조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학습방법의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된다. 또한 정범모는 비정규 교육형태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교육 연령의 폭을 확대하여 유아교육과 ‘계속교육’의 형태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현재의 ‘평생교육’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넓이’ 측면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연동을 언급하게 된다. 교육의 지역사회에서의 위치, 지역사회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 지역사회와 교육의 연계성에 대해 생각하면서, 교육의 대상을 학생에서 지역사회로의 확장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학’적 측면으로는 교육의 효율성을 강조한 측면에서 마치 근대적인 공장의 과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교육도 과학의 원리를 동원하여 바라는 인간행동의 특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범모는 그 시대의 교육이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애석해 하면서 교육을 ‘계획적인 인간행동’의 변화로 규정지었을 때, 교육은 국가발전에 크나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을 우리는 인간행동 특성을 계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이 정의를 그대로 새기면, 교육은 실로 강력한, 어떻게 생각하면 거의 마술적인 수단인 것이다. 이 강력한 수단이 국가발전의 전략에서 최고도로 사용 안 되고 있는 것은 애석하다(정범모, 1975: 355).

5) 심층요인은 지식, 기술, 사고, 태도, 가치관, 성격 등의 무형식적 내용을 포함한다(정범모, 1975:352).

정범모는 교육을 국가발전의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면서 국가발전을 위한 교육은 깊이·길이·넓이·공학 등의 범위의 확장을 통한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는 입장이 바로 '근대화'의 입장으로 구체화 되고 있는 것이다. '발전교육'의 목적이 '자기결정론' 확장인 것을 서두에도 밝혔듯이 '근대화'는 곧 '자기결정론'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화된 방법이다.

### 3. '자기결정론'의 한계

정범모(1989)는 “미래의 선택”에서 급변하는 시대 및 미래사회의 요구에 응하여 우리가 내려야 할 결단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 선택여하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발전철학'과 '탈 발전철학' 사이의 문제이다. 정범모는 '발전철학'의 특징을 '수단주의', '단기주의', '경제주의' 및 '집권주의', '능력주의'로 정의한다. 이와는 반대로, '탈 발전철학'은 '수단적 가치보다는 내재적 가치', '단기보다는 장기안목', '경제주의보다는 전체적 조화', '집권보다는 분권', '실력과 동시에 평등', '문화지향', '전국지향'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제는 '발전철학'의 이념에서 벗어나 '탈 발전철학'을 선택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범모의 발전이론의 근간이 되는 '자기결정론'을 살펴보면, 인간의 '주체성' 및 '합리성'을 강조함으로써 인간 본연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인간을 발전을 위한 수단적 도구로 간주한다기보다는 인간 본연의 발전에 초점을 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관점은 '탈 발전철학'에 가까운 접근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범모(1989)는 '발전'은 겉으로는 경제 이외의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에서는 대부분 경제발전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정치·사회·문화의 발전 모두는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적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그 시대에 팽배했던 윤리·가치 모두가 경제발전을 위해 합리화 및 정당화되었던 것이라고 보여 질 수 있다. '자기결정론'의 기본적인 가치관인 '질서관', '변화관', '미래관' 및 '정복관', '생산관', '창조관' 등 또한 경제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관(觀)'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교육은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밖에 없었다.

사실 정범모의 교육론은 행동주의적 심리학에 영향을 받은 기능주의적 교육이론으로, 전통적인 교육체제와 질서의 변화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인간 개개인이 제도화된 교육의 기회를 통하여 사회적 지위 상승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지지한다. 정범모 교육이론은 그의 초기 저작 이후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에 일부 변화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교육은 국가와 사회 공동체에 봉사하는 수단적 지위를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다(이흥후, 1991; 장상호, 1994). 즉, 정범모(1989)는 당시의 교육을 '인력양성소(人力養成所)'로 간주한 후, '발전교육'이라 함은 경제발전을 위한 특정 기술·지식을 습득하는 사고방식으로서의 접근법을 택했다. 이점에서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

국의 국가발전을 위한 물적·지적 협력으로서 1960-70년대의 ‘발전’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곧, 협력국의 국가발전이란 경제발전을 의미하며, 경제발전을 위해 사회 각 분야가 발전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협력 또한 ‘탈발전’ 논의가 아닌 전통적인 ‘발전’ 논의로 전락할 수가 있다.

하지만, 정보화·기술집약산업 시대에서는 ‘인력교육’보다는 ‘인간교육’의 회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인간교육’이란 인간이 그 무엇의 ‘수단’이 되기보다는 인간 자체가 목적이 되며, 인간 자체의 발전을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정범모는 ‘전인교육(全人敎育)’ 및 ‘고등정신능력(高等精神能力)’ 함양을 강조한다. 21세기의 ‘발전’은 다양하게 접근해야 하는 바, 교육협력 또한 단순한 경제발전을 위하기보다는 ‘인간교육’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유성상 외(2006)는 ‘개도국 교육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는 궁극적 목적은 개도국 국민들에게 체화된 자생적 발전역량의 형성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기술하면서 ‘human ware’라는 용어를 도입한다. ‘human ware’란 인간 본연의 ‘자생적 역량발전(indigenous capacity for development)’이 개인에게 체화되어 사회적 발전을 이룩한다는 개념이다. 곧, 정치·경제·사회 발전을 통한 사회적 발전이 인간의 발전을 유도하기 보다는 인간 본연의 발전이 정치·경제·사회 발전을 이룩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정범모의 ‘자기결정론’의 개념을 국제개발협력 분야로 새롭게 접근하려면 60-70년대를 주도하였던 ‘발전’의 개념을 벗어나서 ‘탈 발전’의 개념으로 접근함이 필요하다. ‘자기결정론’이 인간 본연의 발전을 주장하였으나, 60-70년대의 낙후된 정치·경제·사회 발전의 기본 이념으로 자리매김 함으로써 그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버렸다. 시대의 변화 및 새로운 형태의 개발개념이 요구됨에 따라 ‘자기결정론’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 IV. 논의 및 결론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역사와 한국전쟁으로 인한 민족 분쟁, 끊임없는 이념갈등으로 인한 아픔을 가지고 있으며 극심한 가난으로 인한 절대빈곤을 겪었던 나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반세기 만에 눈부신 경제 성장과 더불어 정치·사회의 발전을 이룩한 나라이기도 하다. 이는, 한국의 과거를 지금의 현재로 살고 있는 개발도상국가에게는 희망의 소식이 아닐 수 없으며, 극복을 위한 한국의 노력은 이들에게는 더 없이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OECD DAC에 2010년 공식적으로 가입함으로써 명실상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모 하였으며, 국가적 위상의 격상과 함께 원조에 대한 위치도 달라졌다. 특히, 우리가 추구하는 ‘한국형 ODA’구축을 위한 노력과 함께 비교우위에 있는 국제교육개발협



력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찬희 외, 2008; 2009; 윤종혁 외, 2012). 하지만, 국제교육개발협력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통합적인 목적과 이념이 존재하지 않아 기관별·상황별 그 형태는 달라져 왔으며 장기적인 안목이 아닌 단기적 사업 형태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국제개발의제가 추구하는 목표인 학습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된 목표에서도 벗어나는 성과위주의 사업형태는 국제교육개발협력사업의 의의를 축소시켰다(최미영, 2009).

따라서 이제는 국제교육개발협력 사업의 공동된 목표를 설정하고 그 기본적 이념 체계를 설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확고한 철학적·이념적 기반이 취약하고 정책방향 부재 속에 목적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국제교육개발협력으로는 인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는 비판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절대빈곤'의 한국에서 처음으로 '발전교육'을 주창하였던 정범모의 '자기결정론'이 개발도상국의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국제교육개발협력 사업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정범모는 '발전교육론'을 바탕으로 국가의 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규정하였는데, 국가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적인 발달을 위해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이야말로 그 당시의 교육이 가져야 할 소명이라 인식하였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정범모는 교육 자체의 발전이 국가 전체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논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교육의 정의를 '인간행동의 계획적 변화'라고 설정함으로써, 교육의 과학적·체계적·근대화적 특성을 부각시켰으나 그 당시의 미국의 '행동주의' 사상을 그대로 답습하며, 교육의 본질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함께 받았다.

정범모의 '발전교육론'은 '자기결정론'을 들어 개인과 사회의 통합적 발달 개념을 내세웠다. 정범모는 '교육의 근대화'를 통해, 낙후된 한국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의 범위 깊이·길이·넓이·공학 등 영역을 확장하게 된다. '교육의 근대화'로 인하여 영역이 확장된 교육은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게 되면서, 교육이 키워내는 인간 스스로의 주체성을 더욱 강조하게 된다. 이러한 바탕으로 정범모는 '자기결정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된다. 즉, 사회에 있어서 개인의 자아실현이 중요하게 되고, 자아실현을 위한 사회발전이 곧 국가발전의 개념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범모의 발전이론은 경제발전 중심의 발전에 근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결정론' 또한 경제발전 중심에 적합한 인간을 길러내는 데 필요한 이념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즉, 인간 본연의 발전보다는 경제발전 및 사회발전에 적합한 특성을 길러내는 것이 더 타당한 목표로 간주되는 것이다. '탈 발전론'에 따르면 수단주의에 치우친 논쟁에서 벗어나서 본연의 발전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정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기보다는 인간 본연의 '자기결정론'을 목표로 설정하였을 경우 개인의 자아실현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기결정론이 '발전론'의 이념이 아닌 '탈발전론'의 이념으로 접근했을 시 정범모의 '자기결정론'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 접근은 개발도상국가의 교육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국가 발전을 위한 교육은 개인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사회 발전만을 위한 개발 보다는 개인의 발전을 통한 국가 발전이라는 변화된 탈발전의 관점이 필요한 시점임을 의미한다. 둘째, 국가발전을 위한 교육은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사회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기존의 사회발전의 형태는 정치·경제·사회의 국가적 발전을 위한 목표를 제시하였다면 21세기 사회발전 목표는 가시적인 국가성장이 아니라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국가 발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국가발전을 위한 교육은 편중된 교육의 성장 보다는 통합적인 교육의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국가발전을 위한 교육이 지니는 한계점은 사회요구에 적합한 인간상을 배출하기 위한 편중된 교육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아실현을 통한 국가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편중된 교육 보다는 전인양성을 위한 통합적인 교육 및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범모의 '자기결정론'이 한국의 국제교육개발협력에 있어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진은 이 연구를 통하여 국제교육개발협력의 목표설정 및 이념적 배경을 발전교육의 태동을 알렸던 정범모의 '발전교육론'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국가의 재건과 함께 교육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정확히 규명하는 일을 하였는지, 더 나아가 실제로 발전교육이 국가의 재건을 위해 성공적인 사례를 거두었던 실질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적 국제교육개발협력의 이념적 배경 및 이론의 형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국제교육개발협력의 이념적 토대를 제안하는 것이 곧, '한국형' 개발모델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 '한국형 국제교육개발협력' 체계를 설립하자는 의견에 있어(이찬희 외, 2008; 2009), 과연 '한국형'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규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공여의 주체가 한국이라고 해서 '한국형'이 되는 것도 아닐 것이며, 한국의 기술이 전수 된다고 해서 바로 '한국형'이라고 명명되는 것도 만무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적인 것이 규명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졌을 때 '한국형'이라는 수식어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고경민, 이희진 (2008).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문제점과 혁신방향: 적극적 평화론의 관점에서. **국가전략**, 14(4).
- 김이경 외 (2000). 2000년 국제교육백서. 한국교육개발원, CR 2000-41.
- 김영화 외 (1997). 한국의 교육과 국가발전(1945~1995). 한국교육개발원.
- 박소영 (2009). 교육ODA, 현황과 개선방향, 6(5). 한국교육개발원.
- 박수현 외 (2008). 인도주의적 개발교육을 통한 ODA 역량 강화. **제4회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 수상**. 한국국제협력단총재상.
- 박태준 외 (2007). 아프리카 지역 교육지원사업 타당성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박충근 (2009). EDCF의 ODA(교육분야 포함) 추진현황과 이슈에 관하여. 교육분야 ODA, 이대로 좋은가?. ((사) 국경없는 교육가회 주최 발표회 지정 토론 자료), 5-12.
- 배상훈 (2007). 한국교육 성장모델의 세계화. 교육ODA 현황과 정책과제(1), **2007 국제교육협력 포럼보고서**, 5-26.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이계영 (2006). 한국의 국제교육협력 정책 추진방향과 전략, **유네스코와 교육**, 15-36, 으뜸.
- 이석희 외 (2007a).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 :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의 교육실태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2007b). 라오스의 교육현황 및 발전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이종재 외 (2006).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in Korea : Past achievement and curr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 이찬희 외 (2008). 한국형 교육개발협력모델 구축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2009). 한국형 교육개발협력추진전략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홍우 (1991). 교육의 개념. 문음사.
- 유성상 외 (2006). 국제교육지원 전략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2006-72.
- \_\_\_\_\_ (2007). 대개도국 한국교육발전경험 연수모듈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2007-73.
- 유재봉 (2004). 정범모의 교육 개념에 대한 비판적 논의. **신앙과 학문**, 제9권 제2호, 217-240.
- 장상호 (1994). 또 하나의 교육관. 이성진 편. 한국교육학의 맥. 나남출판, 291-325.
- 전승훈 (2007). 한국 ODA 철학 및 기본 정책 문서 수립 방안. ODA 기본문서 작성관련전문가토론회. 외교통상부.
- 정범모 (1968). 교육과 교육학. 배영사.

- \_\_\_\_\_ (1969a). 인간과 국가발전. 한국교육생산연구소, 교육연구.
- \_\_\_\_\_ (1969b). 사회개발과 교육. 제1회 사회개발 심포지움 특집: 발전도상국가에 있어서의 사회개발의 제과제; 종합토론, 39-53.
- \_\_\_\_\_ (1975). 사회 발전과 교육이념. 크리스찬아카데미.
- \_\_\_\_\_ (1978). 교육과 국가발전. 교육출판사.
- \_\_\_\_\_ (1989). 미래의 선택. 나남
- \_\_\_\_\_ (1997). 인간의 자아실현. 나남
- \_\_\_\_\_ (2004). 한국의 내일을 묻는다. 나남신서 1060.
- \_\_\_\_\_ (2009). 교육의 향방. 교육과학사.
- \_\_\_\_\_ (2010). Development and Education, Acritical Appraisal of the Korean Case
- 정봉근 (2009). OECD 원조효과성 논의와 한국 교육분야 ODA의 과제. **한국교육**, 제36권 제1호, 73-94.
- 조현아 (2009). 한국의 교육ODA사업으로서 '라오스 중등학교 교과서 보급사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차경수 (1976). 발전교육론의 업적과 과제. **교육학연구**, 14(3), 169-180.
- \_\_\_\_\_ (1998). 발전교육이론. 교육과학신서.
- 최미영 (2009). EFA와 MDGs 성취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국가 간 협력 현황 및 전략적 수행 방안. **교육과학기술 국제개발협력 네트워크 연구 보고서**, 33-61.
- 최성욱 (1997). 교육발전론 재검토. **교육원리연구**. 2(1), 214-245.
- 최영렬 외 (2007a). 국제교육협력 시범사업 발굴지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 (2007b). 인적자원개발관련 교육수출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홍민식 (2008). 국제기구의 교육ODA 현황과 정책과제: OECD의 ODA논의와 한국교육 ODA를 중심으로, 61-90.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World Bank (200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ashington, D.C.: World Bank.
-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http://koreaexim.gov.kr>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홈페이지. <http://ecos.bok.or.kr>
- KOICA 통계사이트. <http://stats.koica.go.kr>
- KOICA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 논문접수 2013년 2월 1일 / 1차 심사 2013년 3월 6일 / 2차 심사 2013년 5월 30일 / 게재승인 2013년 6월 10일

\* 이승천: 경인교육대학교 초등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글로벌교육협력 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현재 인천약산 초등학교에서 재직 중이다.

\* E-mail: musoyoo21@gmail.com

\* 유성상: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에서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Education 전공으로 박사학위(Ph.D)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직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sunsang@hufs.ac.kr

Abstract

## An Analysis of Chung, Beom Mo's 'Self-Determination Theory' as Education Development Theory for the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Education Cooperation of Korea

Ha, Seungcheon\*

Yoo, Sung-Sang\*\*

This research aims at suggesting shared goal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education cooperation of Korea by employing the Chung's theory of education development and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philosophical foundation in the area through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education cooperation of Korea in developing countries. The theory carried forward the modernization of education in development through "self determination theory," which emphasizes self-realization of individuals and pursuit of their true values. The implications of the theory are as followings; First, the education should not only focus on the development of the society in general, but also development of individuals. Second, the education should focus on the development of the society through self-realization of individuals. Thirds, the educations should focus on the comprehensive educational growth, not growth of limited parts of education.

Key words: Chung, Beom Mo, education development theory, self determination theory, International educ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post-development theory

---

\* First author, MA, International Education Cooperation Program,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 Second author and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Teacher Education Program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